

碩士學位論文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忠北大學校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安曉婷

2010年 6月

碩士學位論文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Significance in Narration and Jeonsang in

<Samgongbonpuri>

指導教授 鄭 忠 權

忠 北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國 語 教 育 專 攻

安 曉 婷

2010年 6月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6月

忠北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安 曉 婷

이 論文을 安曉婷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0年 6月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 < 목 차 >

I. 서론 .....	1
1.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대상과 방법 .....	7
II. <삼공본풀이>의 서사 .....	12
1.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 분석 .....	15
2.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 .....	33
III. <삼공본풀이>의 전상의 의미 .....	40
1. 가족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상의 양상 .....	40
2.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전상의 의미 .....	47
IV. 결론 .....	52
참고 문헌 .....	58
초록(Abstract) .....	62

# I.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제주도 무속 신화의 일반본풀이 중 하나인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그로부터 전상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과 목적 등을 상세히 밝히기에 앞서 먼저 <삼공본풀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무속 신화 <삼공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삼공본풀이> 단독 작품 연구와 다른 설화와 관련성이나 주제, 인물 등을 비교하여 언급하는 비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삼공본풀이>를 비롯한 제주 무속 신화에 대한 연구는 현용준, 현승환, 장주근과 최근에는 이수자의 연구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삼공본풀이> 뿐 아니라, 제주 무속 신화의 이론 전반까지 포함하는 연구이다. 이 중에서도 제주도 무속 신화 일반본풀이, 즉 큰굿 열두 제의를 한 편 한 편 분석한 이수자의 연구는 제주 무속 신화의 일반 본풀이 열두 굿을 집대성한 연구로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의 제주 무속 신화와 관련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sup>1)</sup> 이 연구에서도 본고의 논의 대상인 <삼공본풀이>에 대한 내용이 열두 굿의 일부로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저서에는 <삼공본풀이>의 제의적 성격과 전상

---

1)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의 의미, 제의의 목적 등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두 곳의 내용과 성격도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 무속 신화로서의 <삼공본풀이>의 역할과 성격에 주목한 연구이다.

이수자 외에도 <삼공본풀이>를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주로 서사 구조 분석과 더불어 형성 과정 및 전승의식에 대한 연구이다.

현승환<sup>2)3)</sup>은 <삼공본풀이>의 형성과정 및 전승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구조를 발단, 전개, 결말로 나누어 각각을 모두 갈등 구조 즉, 2항 대립 구조로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갈등으로부터 인물의 성격을 추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 신화의 전승 의식을 집안의 빈부와 흥망, 행, 불행은 여자가 타고난 복에 달려 있다고, 다시 말해 운명은 타고 난다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였다.

김영숙<sup>4)</sup>은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그 의미를 신화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김영숙은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탄생-추방-결연-신의 좌절’으로 분석하고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신화를 신, 부권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적 현실인식과 가족 중심의 사고체계가 기저에 깔려 있는 신화라 분석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연구에서 서사 구조로부터 추출한 의미는 <삼공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치열<sup>5)</sup> 역시 제주 무속 신화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2)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3) 현승환,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민요·무가·탈춤연구』, 국문학 연구 총서 12, 태학사, 1997.

4)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35~55쪽.

5)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대상 작품을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로 하여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기타 두 개의 본풀이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 및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사 구조를 ‘추방담-시련담-업무완수’의 구조로 나누고 주인공 가쁜장아가기가 신으로 좌정되는 당위성을 그 의미로 찾고 있다. 각각의 서사 구조는 가쁜장아가기가 여신으로 좌정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로 기능하며, 그 주체가 ‘여성’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여신적 생산력을 통해 여성의 역할 및 기능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김미숙<sup>6)</sup>은 <삼공본풀이>의 공간 의미를 주목하였다. 가쁜장아가기의 행로에 따른 ‘집’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처음 아버지의 집은 가쁜장아가기의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공간’으로, 분리된 후 마통이의 집은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가쁜장아가기의 집은 그녀의 정체성과 화합을 완성하는 공간으로 ‘집’이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삼공본풀이>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위에 언급한 <삼공본풀이> 연구들은 주제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서사 구조 분석에 기초하여 의미나 전승의식을 이끌어낸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삼공본풀이>와 다른 설화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비교 연구가 있다. 다른 설화와의 관련 속에 <삼공본풀이>를 언급하는 연구는 <삼공본풀이>와 유형적 상관 관계가 가장 깊은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다.

---

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6.

6)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장주근<sup>7)</sup>은 <삼공본풀이>가 <내 복에 산다>형 민담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몇 가지 특징적인 모티브가 덧붙여지면서 무가로 형성되었다고 분석하였고, 그것은 최운식<sup>8)</sup>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황인덕<sup>9)</sup> 역시 <삼공본풀이>가 <내 복에 산다>형 민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불교적 세계관<sup>10)</sup>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서사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담과 비교하여 <삼공본풀이>의 전기적 형식성과 구원자적 역할을 차별화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후대 <서동 설화>와 <심청전>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하여 그 영향 관계 검토를 권장하고 있다.

김석배<sup>11)</sup>도 <내 복에 산다>형 민담의 변이양상을 분석하면서 <삼공본풀이>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삼공본풀이>와 민담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본풀이가 좀더 귀족 민중적 영웅의 일생이 혼합되어 있고 구성이 복잡하고 짜임새가 있으며, 다양한 모티브의 첨가로 신화적 짜임 속에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민담과는 아니지만, 이인경의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리어왕>과 <삼공본풀이>의 주제 비교연구<sup>12)</sup>도 눈에 띈다. 이 논문에서는 딸의 효(孝)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가부장적 지배욕이라는 동일한 문제 제기와, 플롯

7)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5, 242쪽.

8) 최운식,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71, 59쪽.

9)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 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1988.

10) 여기서 말하는 불교적 세계관은 불전설화의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불전설화 중 잠보장경 2권 선광공주에 얽힌 이야기인 <파사닉왕여선광연>인데, <내 복에 산다>유형 민담과 매우 유사한 내용과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1) 김석배, 「내 복에 산다 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제3집』, 文學과 語文研究會, 1982, 87~108쪽.

12) 이인경, 「<가쁜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및 서사적 모티프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하였다. 가쁜장아기는 여성성을 내세워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한 데 비하여, 이와 달리 코딜리어는 정치적 욕망 없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순수하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으로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그리고 코딜리어는 가쁜장아기에 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으며, 또 코딜리어와 달리 가쁜장아기는 부모의 각성과 인식의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결말이 <삼공본풀이>는 행복한 결말, <리어왕>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다르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서구의 문학 작품, 게다가 갈래가 다른 작품과 그 주제를 비교한 것이 흥미롭다.

이 외에 <내 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도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삼공본풀이> 연구는 아니지만 상호 유사성이 매우 높아 눈여겨 볼만 하고, 대체로 이 연구들 속에 <삼공본풀이>가 간략하나마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지영<sup>13)</sup>, 김영희<sup>14)</sup>,곽정식<sup>15)</sup>, 조은희<sup>16)</sup> 등이 이 민담의 변이 양상을 언급하거나 사회 입문 과정으로 그려낸 입사담으로 해석하였고, <내 복에 산다> 유형과 <복진 며느리> 유형 등 비슷한 유형군을 묶어 분석한 연구도 있다. <무왕 설화>와 <서동요> 출현에 관한 논문에서도 <삼공본풀이>의 영향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13) 이지영, 「내복에 산다 형 민담의 전승변이 연구」,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221~243쪽.

14) 김영희,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 구전설화 내복에 산다를 중심으로」, 『濫知論叢』, 온지학회, 2008, 379~427쪽.

15) 곽정식, 「내 복에 산다 형 민담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성격」, 『인문학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16) 조은희, 「내복에 산다와 복진며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 글』, 우리말글학회, 2002.

또, 가쁜장아기의 주체적 행위와 성격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여성의식의 성격이나 그 변모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었다. 김정숙<sup>17)</sup>, 광정식<sup>18)</sup>, 정규식<sup>19)</sup>, 정운채<sup>20)</sup> 등은 서사보다도 인물의 주체성과 자아 인식 등에 초점을 두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다른 설화 속 인물들과 함께 가쁜장아기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주체의 자각과 성장이라는 측면의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런 인물의 성격이 후대 여성 영웅 소설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외에도 위의 주제들과는 큰 관련성이 없으나 <삼공본풀이>가 잠깐 언급되는 기타 간접적인 연구가 있다.<sup>21)</sup>

즉, 제주 무속 신화 <삼공본풀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작품의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한 형성과정 및 전승의식이나 의미 등을 다루며 단독으로 작품을 분석한 연구, 또 <삼공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화인 <내 북에 산다>형 민담을 비롯한 다른 설화와의 상호 유사성과 함께 <삼공본풀이>와 유사한 성격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다른 설화 속의 여성 인물 분석으로 인물의 주체성과 독립성에 주목하여 여성주체의 자각과 성장이라는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한 비교 연구, 이

17)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8) 광정식, 「설화에서 본 여성 주체의 자각과 성장」, 『釜山漢文學研究』 부산한문학회, 2003.

19) 정규식, 「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 『동남어문논집』, 동남어문학회, 2002.

20)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建國語文學』,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21) 이 외에도 양민정(「민담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연구」, 『국제지역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이나 박희순(「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에서 <삼공본풀이>가 언급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크게 없는 주제의 연구들로 논문 안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이다.

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이미 <삼공본풀이>와 관련성이 깊은 <내 복에 산다>형 민담의 연구는 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룬 편이다. <삼공본풀이>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서사 구조가 논의되고 있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인물 분석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작품 자체의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미진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사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삼공본풀이> 연구를 심화하고자 한다. 즉, 작품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서사 단락을 분석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의미를 추출한다. 이 의미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가문장아기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그녀가 이룬 성과, 그리고 ‘운명신’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문장아기의 ‘운명신’의 성격과 관련지어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상의 양상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비교하여 <삼공본풀이>의 연구가 다소 부진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제주의 무속 신화에 대하여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생활 전반의 일상신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는 제주도 무속 신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데에 그 두 번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고의 연구대상은 제주도 무속 신화이다. 다양한 국가와 지방에서 전

해지는 신화는 그 세계가 깊고 풍부하다. 또한, 무언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로의 지향과 그로부터 오는 환상성과 더불어 인간과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성성을 비롯하여 무엇보다도 신화 속 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 인류의 문화의 원형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하여 매우 매력적인 요소이다.

본고에서 다룰 제주의 무속 신화는 기록 신화로서는 그리스·로마의 신화가 중심이라면, 구비 신화로서는 제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sup>22)</sup> 풍부한 신화를 향유하고 있어 좋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의 무속 신화는 본토의 무속 신화와 달리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무속 신화의 전승이 한반도 지역과 달리 제주에 더 풍부히 남아있는 것은 섬이라는 제주 고유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육지와는 달리 그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이다.<sup>23)</sup> 뿐만 아니라,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제주도가 섬이어서 문화변동이 적었다는 점, 세습무가 많았던 점, 그리고 바다와 접하고 있어 위험이 많은 관계로 굿이 생활화되어 있어 무가가 전승될 기회가 많았던 데 기인한다.<sup>24)</sup>

이러한 제주도의 환경 및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무속 신화가 존속하며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 정신을 담아낼 수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유체계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제주의 신화는 실로 다양하다. 일명 큰굿이라는 제의 속에서 만들어진

2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110쪽.

23) 허남춘, 「제주 무속 신화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 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3쪽.

24)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8쪽.

이 신화들은 천지창생부터 시작하여 인간탄생, 사후세계, 농경기원, 풍농신, 가택 수호신, 운명신, 조상신 등<sup>25)</sup>에 이르기까지 본토의 무속 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신화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나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무속 신화, 즉 본풀이는 크게 일반 본풀이, 당 본풀이, 조상 본풀이<sup>26)</sup>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본풀이란 일반적인 자연사상이나 인문사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요, 당 본풀이란 무락 수호신인 당신들의 내력담이며, 조상 본풀이란 한 집안 또는 한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이다.<sup>27)</sup>

대개 많이 알려져 있는 제주도의 무속 신화들은 일반 본풀이가 많은데, 여기서 신들이 다루는 현상은 천지창조, 산육, 운명, 농경과 풍요, 치병, 수복 등으로 집안을 보호하고 후손을 주며, 원혼 치유까지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 관련된 일들을 맡고 있는 신들의 본풀이이다. 일반 본풀이는 모두 장편으로 단편인 당신 본풀이와 대조적이며, 민담의 모티프를 풍부하게 수용하고 있고, 불전설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그래서 일반 본풀이는 제주도의 토착적인 당신 본풀이와 달리 본토의 무가와도 공통점이 많다.<sup>28)</sup> 이 본풀이들 중 제주 무속

25) 제주도의 일반 본풀이인 큰굿 열두굿에 이러한 다양한 신들의 기능이 드러난다. 첫 번째 굿인 천지왕본풀이가 천지창조 신화이며, 두 번째인 생불할망본풀이는 산신신화, 세 번째가 초공본풀이로 최초의 무조신의 이야기인데 흔히 육지에서는 제석본풀이라고도 한다. 네 번째는 이공본풀이로 인간의 생명을 조정하는 이공신들의 이야기, 다섯 번째가 삼공본풀이로 운명신, 여섯 번째가 차사본풀이로 저승신에 관한 이야기, 일곱 번째는 사만이 본풀이로 장수신의 이야기이며, 여덟 번째는 세경본풀이로 농경신, 아홉 번째가 칠성본풀이로 풍농신, 열 번째는 문전본풀이로 집안의 여러 공간을 지키는 성주신, 열한 번째는 마을 수호신에 대한 제의, 마지막 일월조상맞이제는 집단의 수호 조상신에 대한 제의가 되겠다.

26)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312~313쪽.

27)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75쪽.

신화의 기초를 이루는 세 개의 본풀이가 있는데 먼저 무당의 조상신의 근본을 이야기한 <초공본풀이>, 또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서천꽃밭 꽃감관 신산만산 활락궁의 근본을 풀이한 <이공본풀이>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신의 내력을 풀이하러 인간 한평생의 전상을 관장하는 운명신 가 큰장아기의 근본을 풀이한 <삼공본풀이>가 바로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연구 대상이 되겠다. 이 <삼공본풀이>는 본래 제주도 곳에 있던 본풀이가 아니고 구전되던 설화를 심방들이 수용하여 무가로 불렀다고 하는데<sup>29)</sup>, 큰곳의 한 재차인 <삼공본풀이>와 <삼공맞이>에서 불려지는 무속 신화이다. <삼공본풀이> 때는 심방이 제상 앞에 앉아서 장고를 치며 노래하고, <삼공맞이> 때는 이 신화를 연극적으로 연출하여 부부 거지가 거지 잔치의 술상을 받아 앉아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불려져,<sup>30)</sup> 무속 신화라는 갈래답게 연회적 제의가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특히 <삼공본풀이>는 다른 일반 본풀이의 내용이 본토에서도 채록되고 있는 데에 반해, 제주도 무가에서만 드러나고 있으며, 흥미롭고 풍부한 민담 모티브들을 내포하고 있어 좋은 연구 대상이 된다.<sup>31)</sup>

<삼공본풀이>는 무속 신화로 구비 문학에 해당하는 갈래이니만큼, 그 구전되는 내용과 수록된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을 것은 현용준·현승환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에 수록된 것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외에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과 장주근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를 함께

2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무속 신화』, 역락, 2001, 45~46쪽.

29)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 출판, 2006, 291쪽.

30) 김석배, 「내 복에 산다 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제3집』, 文學과 語文研究會, 1982, 101쪽.

31) 장주근, 『(풀어쓴) 우리의 신화』, 집문당, 1998, 106쪽.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서사는 서사 단락 분석과 그것을 구조화하는 작업까지 포함한다. 서사 단락은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되고 서술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이야기의 서사 단락을 ‘부녀갈등과 분리 - 가족에 대한 징치 - 마통이와의 혼인 - 금 획득 - 거지잔치’의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이 5단계로 나눈 서사 단락을 묶어 구조화 시킨다. 표면적인 서사 구조의 기저에는 인물의 행위의 의미, 각각의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깔려 있다. 따라서 <삼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의미 추출을 위해 먼저 서사 단락을 나누어 분석하고 그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사 단락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조는 각 서사 단락에 따른 인과적 구조, 즉 순차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구조는 가문장아가 부정적인 가족 질서를 거부하고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과 더불어 가문장아의 운명신으로의 좌정이라는 과정이 함께 연결이 되어 두 개의 병치되는 의미가 추출될 수 있다.

이 구조로부터 추출되는 두 가지 의미는 모두 사건의 주체로 역할하는 가문장아의 행위 분석 및 사건의 인과적 연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바탕이 된다. 가문장아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통하여 ‘전상’의 양상이 드러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상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서사 단락 분석과 그 구조화를 토대로 추출되는 의미로부터 ‘전상’의 의미와 가문장아의 ‘전상신’으로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떠한 교훈과 지혜를 전달하는지도 함께 탐구하도록 한다.

## II. <삼공본풀이>의 서사

<삼공본풀이>는 운명신의 내력담을 풀이한 본풀이<sup>32)</sup>이다. <삼공본풀이>는 다른 무속 신화에 비해 여타 민담과 전설의 흥미롭고 풍부한 모티브들이 아주 잘 들어와 있는 무속 신화라는 점이 이채롭다. <삼공본풀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아주 익숙한 여러 설화의 화소들이 여럿 눈에 띈다. 특히 서사의 기본 줄기는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매우 밀접하며, 더불어 주인공 가문장아가 집을 나간 후 마통이와 혼인을 하는 부분은 <서동 설화>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거지 잔치를 열어 장님이 된 부모의 눈을 뜨게 하는 부분은 <심청전>과도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은 이를 부르는 무당들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제 면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본고는 현용준·현승환의 『한국 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에 수록된 것을 텍스트로 하고,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과 장주근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를 함께 참고하였다.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2) 장주근(『제주도 무속과 무속 신화』, 역락, 2001, 43쪽)과 문무병(「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5쪽)의 정리를 참고하자면, 본풀이의 어의는 글자 그대로 ‘본을 푼다’의 명사형이다. 그것은 <초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식으로 그 신의 ‘본을 푸는’ 것이며, 신의 근본을 해설하는 것이다. 명사 ‘본’은 근본, 내력, 본원, 역사 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동사 ‘푼다’는 해설, 해석, 설명 등의 의미가 있다. 동시에 ‘노여움을 푼다’라든가 또는 ‘문제를 푼다’, ‘몸을 푼다’ 등과 같이 화열, 해결, 용해 등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신을 화열케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기능이 생동하는 신화인 동시에 신을 강림 화열시키는 주력도 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한마디로 해석하면 ‘본풀이’는 ‘무속신화’라는 말이 된다. 신화가 본질적으로 갖춰야 하는 설명성과 종교의례성을 ‘본풀이’라는 말은 그 어감에서부터 생생하게 풍겨주고 있다. 따라서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 좌정에 이르기까지의 신의 내력담이 되는 신화이다.

옛날 옛적 윗마을에 사는 총각 강이영성이서불과 아랫마을에 사는 처녀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남이 흥년이 들어 구걸하는 와중에 만나 혼인을 했다. 얻어먹고 품팔이를 하면서 첫 딸을 낳았는데 가난하여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주니 은장아기라 했다. 이리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놋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주니 놋장아기라 했다.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가루를 타 먹여주니 가문장아기라 했다. 막내딸 가문장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살림살이가 늘어 이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막내딸 가문장아기가 15살이 되었을 때 비가 오는 어느 날, 이 부부가 심심하여 문답을 해보고자, 세 딸을 차례로 불러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고 물어봤다. 큰딸과 작은딸이 모두 부모 덕이라고 답한 데에 비해 가문장아기는 저의 북(배 밑 선그릇)<sup>33)</sup>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하고, 이 대답에 화가 난 부부는 가문장아기를 쫓아낸다. 가문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식량을 실어 집을 나가는데, 어머니가 막상 딸을 쫓아내니 섭섭하고 안되어 큰딸을 불러다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라 하나, 큰딸은 가문장아기를 쫓아내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러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가문장아기는 진언을 쳐 큰딸을 청지네로 만든다. 큰딸이 오지 않자 부부는 작은딸에게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라 하는데, 작은딸 역시 가문장아기를 쫓아내기 위해 같은 거짓말을 하고 가문장아기는 진언을 쳐 둘째딸을 용달버섯으로 만든다. 두 딸이 안 오자 궁금해 나가보던 부부는 문지방에 걸려 눈이 걸려 장님이 되고, 장님이 된 부부는 많은

33) 배 밑 선그릇은 배꼽 아래의 세로로 그어진 금으로, 보통 음부나 여성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신화는 출생이나 다산 등과 관련되는 신화가 아니라, '운명신'에 관한 신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꼭 음부 등의 생명력과 관련한 것이 아닌 좀더 다양한 층위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살림을 잃고 옛날처럼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게 된다.

한편, 집을 나간 가문장아기는 떠돌아 다니다가 산에 있는 허름한 초막을 찾게 되고, 마통이 삼형제네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된다. 가문장아기를 묵게 하였다고 욕을 하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 모가지와 마 꼬리를 주는 통명스럽고 사나운 첫째, 둘째 아들과 달리 막내 아들은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았다. 가문장아기가 밥을 하자 큰 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는 벌레밥이라며 화를 내고 먹지 않았으나, 그와 반대로 가문장아기의 밥을 맛있게 먹은 막내 마통이는 가문장아기와 혼인을 하게 된다. 가문장아기는 남편에게 마 캐던 곳을 구경가자고 하고, 똥이 가득한 큰 아들의 마 캐는 곳과 뱀이 가득한 둘째 아들의 마 캐는 곳과는 달리 막내 아들의 마 캐는 곳은 금과 은이 가득해 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된다.

호강하며 살게 된 가문장아기는 부모가 보고 싶어 거지 잔치를 연다. 석달 열흘 동안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날 눈 먼 거지 내외가 찾아오는데 바로 가문장아기의 부모였다. 가문장아기는 일부러 부모를 가장 늦게 대접하면서 내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다. 부모가 막내딸을 내쫓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문장아기는 울며 자신이 막내딸이라 하고, 이에 놀라 두 부부는 눈을 뜬다. 살던 옛집에 가보니 청지네와 용달 버섯도 그대로 있어 진언을 쳐 두 언니를 살려내고 온 식구가 다시 잘 살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전후의 사정을 말하고 자신은 전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간의 세상살이 모두가 전상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뒤로 가문장아기는 전상신이 되었다.<sup>34)</sup>

34)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1.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 분석

위의 줄거리를 토대로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에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 1) 거지부부의 집에 막내딸 가쁜장아기가 태어나면서 부자가 된다.
- 2) 부부는 어느 날 딸들을 모아놓고 누구 덕에 사는지를 물어본다.
- 3)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부모님 덕으로 산다 하지만, 막내딸인 가쁜장아기는 자신의 덕(배꼽 밑 선그릇)이라고 대답한다.
- 4) 화가 난 부모는 가쁜장아기를 내쫓는다.
- 5) 쫓겨나는 가쁜장아기에게 서운해진 어머니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시켜 다시 불러오게 하지만, 언니들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가쁜장아기는 언니들을 각각 청지네와 용달머섯으로 변신시킨다.
- 6)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궁금해서 나서던 부부는 문지방에 눈이 걸려<sup>35)</sup> 장님이 되고 다시 가난해진다.
- 7) 집을 나간 가쁜장아기는 마통이 3형제의 집에 목게 된다.
- 8) 마통이 3형제 중, 사납고 통명스러운 첫째, 둘째 마통이와 달리 막내 마통이는 착하고 효성스런 마음씨를 지녔다.

---

35) 본고에서 텍스트로 참고한 현용준·현승환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편에서는 가쁜장아기의 부모가 장님이 된 원인을 위와 같이 문지방에 눈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나타난다. 구전되는 문학인만큼 부모가 장님이 되는 연유는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장주근의 저서 『한국의 신화』(1965)와 『(풀어쓴)한국의 신화』(1998),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1977), 『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등을 참고하여 차이가 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내용상의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장님이 된다.
- ② 윗중방에 눈을 부딪혀 장님이 된다.
- ③ 아버지 강이영성은 창문으로 나가다 풍채작대기에 눈이 찢리고, 어머니 흥운소천은 대문으로 나가다 문고리에 걸려 장님이 된다.

- 9)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지어준 밥을 맛있게 먹은 막내 마통이와 혼인을 한다.
- 10) 다음 날, 남편인 막내 마통이의 마 캐는 곳을 가보니 똥과 벌레가 가득한 첫째, 둘째 마통이의 마 캐는 곳과 달리 금과 은이 잔뜩 있었다.
- 11) 이 금을 팔아 가문장아기와 마통이 부부는 부자가 된다.
- 12)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는 눈먼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연다.
- 13) 가문장아기는 잔치에 찾아온 부모를 일부러 늦게 대접한다.
- 14)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던 중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눈을 뜨게 된다.
- 15) 징치했던 언니들까지 다시 변신시키고 가문장아기는 전상신으로 좌정된다.

이와 같은 서사 단락을 비슷한 내용으로 묶어서 보면 1)~4)까지 부녀 갈등과 분리, 5)~6)은 가족에 대한 징치, 7)~9)는 마통이와의 혼인, 10~11)은 금 획득, 12)~15)까지 거지 잔치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 가. 부녀 갈등과 분리

1)~4)까지는 가문장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서사 단락으로 부녀 갈등<sup>36)</sup>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녀 갈등을 논하기에 앞서 가문장아기의 출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로 서사 단락을 나누어 놓지는

36) 부녀갈등 화소는 <삼공본풀이>가 <내 북에 산다>유형 민담과 상관관계 매우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두 이야기는 화소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구전되는 이야기라는 특성상 변이되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나, 부녀 갈등만큼은 각 이야기에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요소이며, 질문의 양상 역시 본고에서 분석하는대로 전형적인 부권 사회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 내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않았지만, 가문장아기의 출생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신으로 좌정되는 가문장아기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면서 후에 가문장아기를 주체로 한 신화가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가문장아기의 출생에서 원래 거지였던 부부, 가난하게 품팔이를 하며 살던 이 부부는 가문장아기를 낳으면서부터 살림이 펴고 부자가 되었다. 이 부분을 통해 부의 원인은 분명 가문장아기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문장아기가 직접적인 주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문장아기가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심심하던 어느 날 딸들을 불러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부녀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가문장아기가 15살 되던 해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고 물어본다.

“큰딸아기 여기 와라.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

“막내딸아기 이리 와라.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 받신하느냐?”<sup>37)</sup>

질문을 한 아버지<sup>38)</sup>는 분명 이 질문의 답을 미리 기대하고 있다. 질문 자체는 무의미하다. 부모로서 단지 자식의 입에서 모든 것이 부모의 덕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고 그를 확인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위압적이고 가부장적인 면모를 보일 뿐이

37)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97쪽.

38) 실제로 대개의 <삼공본풀이> 안에서는 부모와 문답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문답을 주고받은 주체는 아버지가 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부녀갈등이라 지칭한다.

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유적 관념을 가진 채 부모의 권위와 위신만을 긍정하고 싶어한다. 부모의 기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원하는 대답, 부모의 덕이라고 답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두 딸이 부모의 덕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우러난 대답을 한 것은 아니다. 두 딸이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또한 ‘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중히 여길 만큼 도덕적 사유 체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 두 딸은 정작 막내딸을 내쫓은 뒤 걱정하고 후회하는 부모와 가쁜장아기 사이를 거짓말을 통해 이간질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하며 부모를 진정한 의미의 가족 질서의 주체자로 여기기보다는, 부자인 부모에게 의지하여 편안히 사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에게 기대어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가쁜장아기의 두 언니는 상황이 바뀌면 또 그 상황에 맞추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일 것이다.

이에 비해 가쁜장아기는 두 언니들과는 달리 부모의 덕이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덕(배꼽 밑 선그릇의 덕)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에 가쁜장아기의 부모는 화를 내게 되고, 이것으로 부녀 갈등이 표면화되어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쁜장아기의 행위는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는 불효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타나는 부녀 갈등은 ‘효’의 가치에 도전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부모의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식의 독립적 인격체를 거부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부

정이며, 당당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독립 의지를 밝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중시되어야 할 자식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이며, 부모의 소유물일 수는 없다.

가쁜장아기의 이 대답에 부모는 어찌 보면 부모의 역할과 존재를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답에 분노하며 역정을 내지만 실제로 이 부부의 부(富)가 가쁜장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생겼다는 신성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부부의 역정도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부모는 단지 자신들의 권위를 상실했음에 분노하고 있고, 부모로부터의 예속을 거부하는 그 독립의지에 대하여 과거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분노감정은 더욱 그 정도가 컸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감정은 그 사소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딸의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쁜장아기는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로서가 아닌 자신의 인격 스스로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관습을 부정하고 그것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녀 갈등은 그녀가 평범한 인간에서 신으로 좌정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미리 가졌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이며, 그녀가 기존의 부정적 가족질서에 대하여 당당히 반기를 들고 새로운 가족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다.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는 인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 자신으로서의 인생에 대하여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 않고

당당히 움직이며,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이고, 아버지의 권위만으로 표상되는 당대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역정에 축출을 당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권위가 우세함에 따라 가문장아기의 패배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 가문장아기는 울면서 쫓겨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다. 가문장아기는 소에 먹을 것과 의복까지 챙겨서 당당하게 집을 나선다. 능동적으로 나서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정에 의해 집을 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가문장아기에 대한 축출 요소라 볼 수 있겠다.

## 나. 가족에 대한 정치

5)~6)은 간략한 두 개의 서사 단락이지만 가문장아기라는 인물의 성격과 더불어 무속 신화라는 갈래적 성격이 나타나는 중요한 신화소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 사건은 부녀 갈등에 이어 자매간 갈등도 간략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가문장아기의 두 언니는 사실 비중이 큰 인물은 아니다. 부모와의 문답 장면을 비롯하여 가문장아기가 언니들을 청지네와 용달 버섯으로 변신시키는 장면에만 나타날 뿐이다.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본풀이 안에서 두 언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본풀이 속에서 부정적 인물형으로 나타난다. 두 언니는 가문장아기를 축출하는 권위적인 부모에 이어 가문장아기에게 대립적 인물로 작용하며, 역시 비정상적 가족 질서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부모와의 문답에서는 부모에 의존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며, 또한 자매간의 우애 없이 매정하게도 막내 동생을 내쫓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언니들의 모습은 부녀 갈등의 원인이 된 가부장적 모습에 이어 화합과 우애의 부재로 나타나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서사 단락은 가문장아가 부녀 갈등에 이어 자매 갈등을 통해 부정적인 가족 질서에 대하여 확연히 거부를 나타내는 모습, 더 나아가 징치라는 수단까지 적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심술을 부린 언니 둘에게 진언을 쳐서 청지네와 용달 버섯으로 변신시키는 것이다.<sup>39)</sup> 이 부분은 주인공 가문장아의 신성성을 최초로 보여주었던 탄생에서 그녀 스스로의 행위의 주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데 비해 그녀의 주술적 능력 발휘로 인한 신격 존재로서의 면모가 확연히 부각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민담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언니들에 대한 징치 화소는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뿐 아니라, 또 다른 비정상적 가족 질서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거부는 부모에게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언니들에게 행한 것과는 달리 가문장아의 주체적 행위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신격을 가지게 될 그녀의 능력과 신성성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그녀의

---

39) 이 부분은 명백히 민담과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구전되는 약 60여 편의 <내 복에 산다> 유형의 민담(참고자료 : 『구비문학대계』 1~46권, 『한국구전설화』 1~12권) 중에서도 이러한 화소가 드러나는 민담은 구전되고 있지 않아 <삼공본풀이>가 민담과는 구분되는, 신화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는 중요한 화소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진언을 쳐서 언니들을 변신시키고 있는 부분은 가문장아의 신적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민담인 <내 복에 산다>에는 그녀의 이런 도술적 능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언니들에 대한 내용도 부모와의 문답에서만 드러나 그 비중이 작다. 민담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진언을 통한 징치 화소는 민담에서 신화로의 성격의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며, 민담에서는 비중있게 언급되지 않던 언니들에 대한 부정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모 역시 은장아기와 늦장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방문을 나서다가 문지방에 눈이 걸려 장님이 되고 말았으며 그와 함께 다시 집안의 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언니들에 대한 거부는 진언을 통한 가쁜장아기의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부모에 대한 거부도 가쁜장아기의 존재가 매개가 될 뿐이며 주체적인 행위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 가쁜장아기는 축출되면서 가부장적 가족 질서 및 비정상적 가족 질서에 대한 부정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부정적 가족 질서에 대한 거부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다.

#### 다. 마통이와의 혼인

7)~9)는 마통이<sup>40)</sup>와의 혼인이다. 이 서사 단락은 ‘부모’라는 첫 번째 가족 체계로부터 축출된 후 혼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남편’이라는 새로운 가족 체계 안에 들어서는 가쁜장아기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이 서사 단락은 가쁜장아기의 결혼관과 가족관을 엿보고 그녀가 후에 어떤 가족 질서를 새로이 잡아나갈지 암시하는 중요 단락이며, 역시 앞의 서사 단락

---

40) 역시 <내 복에 산다>형의 민담을 비교하여 보자면, 대부분의 민담에서는 이 직업이 마통이가 아니라 솥 굽는 총각으로 나타난다. 일부 변이된 유형으로 마통이 혹은 머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모든 대상은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삼공본풀이>에서는 민담과 그 유사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쁜장아기의 남편으로 솥 굽는 총각이 아닌 마통이로 설정된 것이 흥미롭다. 이를 통해 <내 복에 산다>형의 민담 뿐 아니라, 마 캐는 남편이 화소로 나타나는 <서동 설화>와도 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주목할 만한데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가 후대 서동 설화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황인덕의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무가의 상관성」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정규식의 「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에서도 <삼공본풀이>와 <서동 설화>를 유사한 종류로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고, 정운채의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에서도 가쁜장아기와 선화공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들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자로서, 그리고 신격을 가진 능력자로서 가쁜장아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단락이다.

집을 나간 가쁜장아기는 산 속의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 들르게 된다. 마통이 삼형제의 집은 그녀에게 집을 벗어나 맞닥뜨리게 되는 또 다른 시련의 공간이면서 그녀에게 성공의 기회를 부여하는 통과 의례적 공간이다. 마통이 삼형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쁜장아기의 집안과 대조적으로 집안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 인물로, 이 집에서 묵으려는 가쁜장아기에게 삼형제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쁜장아기도 세 자매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삼형제가 나타나는데, 가쁜장아기네 세 자매와 마찬가지로 마통이네 삼형제도 첫째, 둘째는 심술궂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게다가 또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가만히 보니, 큰마통인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마 모가지나 드십시오.”  
마 모가지를 꺾어 드리고, 자기는 잔등이로 우막우막 먹고, 둘째 마통인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 많이 먹었으니 마 꼬리나 드십시오.”  
마 꼬리를 끊어주고, 작은 마통인 마를 삶으니,  
“설운 어머니님 아버지님, 우리들 낳아 키우려 하니 얼마나 공이 들고, 이제 살면 몇 해를 살 겁니까.”  
양 끝은 꺾어두고 잔등이로 드린다. 가만히 보니 쓸 만한 것은 작은 마통이밖에 없구나.<sup>41)</sup>

41)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3쪽.

가쁜장아기는 마통이 삼형제와 대면한 첫 장면에서 막내 마통이의 인품을 알아본다. 인품은 가쁜장아기가 혼인에서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었다. 또한 첫째 마통이와 둘째 마통이가 부모에게 드리는 마의 부분은 여기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가쁜장아기는 부모에게 저항하여 축출을 당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불효한 자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쁜장아기는 마의 어떤 부분을 부모께 드렸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불효자인 첫째, 둘째 마통이를 거부하고 부모님에게 ‘효(孝)’의 가치를 갖추고 대하는 막내 마통이를 쓸 만하다고 알아본다. 다소 역설적으로 가쁜장아기는 이미 ‘효’라는 가치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그녀에게 있어서는 효의 가치보다도 독립의지라는 가치가 우선 되었을 뿐일 것이다. 독립의지, 혹은 가부장적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이 바로 불효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불효로 보일지라도,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 질서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듯 싶다.

또한 가쁜장아기가 귀한 흰 쌀로 저녁밥을 지어 주었을 때, 첫째와 둘째 마통이는 그것을 벌레밥이라며 화를 내고 먹지 않았으나 막내 마통이는 달랐다. 막내 마통이는 가쁜장아기가 지어준 밥을 혼자 맛있게 먹었고, 결국 가쁜장아기는 막내 마통이와 혼인을 하게 된다.

그녀는 혼인에서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나름대로 가쁜장아기 자신의 선택 기준을 세운다. 그래서 삼형제들이 부모님께 마를 드리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쌀밥을 지어 내어 보이기도 한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모습을 살피고 그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려는 그녀의 모습은 당대 사회 문화적 관습 속에서 역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

여준다. 이때 첫째, 둘째와 달리 막내 마통이는 배우자로서 가문장아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문장아기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남편, 즉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다. 비록 부귀와 권세를 가진 배우자는 아니었지만, 그것 역시 가문장아기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가문장아기의 가족관이며 가치관이다. 가문장아기는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효심이 깊은 막내 아들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 더구나 이 막내 마통이는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웠던 가문장아기의 아버지와 대조되는 인물이다. 첫째와 둘째 마통이와는 달리 그는 가문장아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물로 나오며, 실제로 권위와 위신을 가진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신격을 가진 인물로 후에 신으로 격상될 존재이자 이야기 속의 주체적 행위자인 가문장아기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다소 소극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가문장아기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막내 마통이는 위대함을 갖춘 인물은 아니다. 그는 산 속에서 마를 캐며 살아가는 천하고 가난한 신분의 젊은 이일 뿐이다. 그가 신적 존재인 가문장아기의 남편으로서 갖춘 것은 착한 마음씨와 효심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가치 요소였는지도 모른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이라는,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항상 신화 속에는 신화 속 주인공들을 돕는 조력자가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 조력자는 <삼공본풀이>에서는 남편인 막내 마통이로 나타나며, 막내 마통이와의 혼인을 통해 가문장아기는 시련을 극복하고 운명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마통이와의 혼인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모로부터

의 축출로 인해 가정을 상실한 그녀는 혼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된다. 마통이와의 혼인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정을 부여하는 중요 단락이자, 그녀가 부정적인 가족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새로운 가족 질서를 성립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혼인 과정에서도 가문장아기는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본격적인 행위 주체자로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또한 혼인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가문장아기가 시련을 끝내고 새로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운명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통과제의적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 라. 금 획득

10)~11)은 금 획득<sup>42)</sup> 단락이다. 바로 위의 사건을 통해 마통이와의 혼인을 계기로 가문장아기는 시련과 통과제의의 여정을 끝내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녀가 신격을 가진 이 이야기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본격적인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금 획득’을 통해 뚜렷이 구체화된다.

다음날 아침 가문장아기가,

“산중 산앞 마 파던 테를 구경잡시다.”

작은 마통이와 함께 가 보니 큰 마통이가 마 파던 테는 누릿누릿한 것

---

42) 금 획득 부분 역시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유사하며, 또한 마 케는 남편에 이어 <서동 설화>와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민담에서는 숯 굽는 총각이 남편으로 나타나는만큼, 금이 발견될 때도 숯 굽는 이맛돌이 금이 되는 경우나 숯가마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민담의 유형에 따라 부뚜막이나 샘뚝, 오리 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금 발견 장소는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변이를 나타낸다.

이 있어 ‘이거 무엇인가.’ 하여 쥐어 보면 똥만 물컹물컹 쥐어지고, 둘째 마통이가 마를 파던 데는 ‘이거 무엇인가.’ 래서 보면 지네, 뱀, 짐승들이 가득하고, 작은 마통이가 마를 파던 데는 자갈이라 하여 주워 던져버린 것이 있어 곁에 묻은 흙을 쓸어 보면 금덩이이고, 주워 보면 은덩이이고, 둥글둥글 나온다.

검은 암소에 실어 와 파니 우마가 생기고 유기 전답이 생겨난다. 처마 높은 기와집에 풍경 달고 남부럽게 잘 살아간다.<sup>43)</sup>

사나웠던 첫째 마통이의 마 캐는 곳에서는 똥이, 둘째 마통이의 마 캐는 곳에서는 뱀이 가득한 것<sup>44)</sup>은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고약한 심보로 인해 각각 청지네와 용달 머슴으로 변신하게 된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하다. 역시 악하고 사나운 마음을 가진 인물에 대한 징치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 마통이의 마 캐는 곳에 똥과 뱀 등이 가득한 것은 언니들에 대한 징치와는 달리 가문장아기의 주체적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가문장아기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존재 자체로 인한 어떤 신성성의 요소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두 인물 역시 가문장아기에게 시련을 준 인물이면서 불효하고 사납다는 인물의 성품상 징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징치는 지네와 머슴으로 변신을 당한 언니들과는 달리 마 캐는 곳에 부정적인 사물들만이 가득하다

43)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5쪽.

44) 이 부분은 언니들에 대한 징치가 신화인 <삼공본풀이>에만 언급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에서는 따로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또한 다른 형제들의 마 캐는 곳에서 똥이나 뱀, 짐승 등이 나타났다는 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역시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는 것으로 그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 막내 마통이의 마 캐는 곳에서는 금이 발견되는데, 이는 가문장아가 가난을 극복하고 다시 부를 이룩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가문장아가 탄생과 함께 이루었던 부를 잠시 잃었다가 금 획득을 통해 다시 이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문장아기 자신의 복이자 능력일 것이다. 실제로 막내 마통이에게 마를 캐는 곳에 가보자고 한 것도 가문장아기였다. 거기에 금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그녀의 주체적인 행위의 결과는 아니었다. 가보자고 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금이 이미 거기 알고 있었다든지 금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찾아간 곳에 때마침 금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 존재 자체의 신성성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남편인 마통이가 몰라보던 금을 가문장아기가 알아보았다는 것은 물론, 신분상의 차이 때문이었다.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마통이는 자기가 마를 캐는 장소에 잔뜩 있는 금을 보고서도 그것이 귀한 것인지,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러나 가문장아기는 금을 알아보았고, 마통이에게 단지 돌덩이에 불과했던 금덩이들은 이 부부의 부귀영화의 원천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문장아기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금 획득 역시 그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며, 그녀의 남다른 지혜 때문이었다.

그녀가 부녀 갈등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지혜를 이미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지혜와 현명함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한 금 발견을 통해 다시 그녀는 신성성 뿐 아니라, 헤안을 갖춘 현명함을 바탕으로 신격 존재임을 확인받고 이 역시 이 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을 갖추는 요소가 된다. 주술적 능

력을 발휘한 전의 사건들과는 달리 이는 어찌 보면 가문장아기의 직접적인 신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저 하늘이 도와준다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그런 존재이다. 어찌면 그녀가 남편으로 막내 마통이를 선택하면서 금 발견은 필연적으로 이어진 것인지 모른다. 비록 겉으로는 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남편이지만 마음이 착해서 복을 받을만했던 남편이었기에 역시 남편의 마 케는 곳에서의 금 발견은 이 신화 속에서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인한 혼인의 결과는 금 발견으로 이어지고, 금 발견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또한 후에 부녀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가 시련을 거쳐 온 운명의 주인공으로서, 부정적인 가족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축출되었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 질서를 재편하는 능력과 권위를 갖춘 인물로, 가족 화합의 주체자로 역할하게 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작품이 신화로서 그녀가 신으로 좌정되는 중요한 성공담의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 마. 거지 잔치

12)~15)는 거지잔치<sup>45)</sup>로 가문장아기가 거지가 된 부모를 찾고 부모와

45) 거지잔치 화소는 <내 복에 산다>형의 민담에서는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민담에서는 이 결말 부분에서 다양한 변이 양상이 나타난다. 대체적인 결말의 양상은 딸의 이름이 들리는 대문을 제작하였다는 것이고(『구비문학대계』의 1-9의 <내 덕에 먹고 사는 셋째 딸>이나, 7-14의 <숯장수 이마덕과 장승 딸>, 7-16의 <제 복으로 사는 막내딸>, 8-8의 <제 복에 사는 딸>이나 『한국구전설화』 7의 <내 복에 산다>와 10권과 12권의 <내 복으로 산다>, <제 복에 산다> 등의 구전 민담), 거지가 된 아버지가 동냥하러 왔다가 만나거나 딸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찾아간다는 내용(『구비문학대계』 5-6의 <자기 복으로 산다> 등)도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거지 잔치가 화소로 차용된 것은 이 이야기가 무속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금 발견으로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연다. 가문장아기는 지금 충분히 자신의 복력과 운명을 시험했고, 그에 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거지 잔치를 열고 부모를 찾는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내친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잊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부모를 찾는 것은 부모가 장님이 되고 가난해진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가문장아기가,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도 나를 낳아준 설운 어머니님 아버지님은 틀림없이 거지가 되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님 어머니님이나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거지 잔치나 해 보고 싶습니다.”<sup>46)</sup>

이 말에는 본풀이의 처음에 드러나는 부모와의 문답에서 했던 가문장아기의 답변과 그녀의 가출이 불효가 아님이 잘 드러난다. 그녀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며, 이 시도가 성공한 뒤 그녀는 징치했던 것들을 복원하고 다시 화합하는 것으로 이 시도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부모를 위해 잔치를 연 가문장아기이건만, 이 잔치에 찾아온 부모에게 일부러 늦게 대접하는 의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

신화라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본고의 11쪽에서도 논했듯이, <삼공본풀이>가 <삼공맞이>에서 불려지는 무가이며, 이의 형식이 맹인 거지 부부가 거지 잔치에서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거지잔치 화소가 무속 신화의 연회적 제의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화소라 볼 수 있다.

46)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5쪽.

“저기로 오는 거지는 밥을 먹기 위해 위로 앉으면 밑에서부터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고, 밑에 앉으면 위로부터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고, 가운데 앉으면 양끝으로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라.”<sup>47)</sup>

가쁜장아기는 부모가 윗자리에 앉으면 아래부터 음식을 주고, 아랫자리에 앉으면 위부터 음식을 준다. 결국 가쁜장아기는 부모가 마지막까지 남아서야 진수성찬을 대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결말을 고대하는 청자의 극적 흥미를 돋우는 동시에, 꿀탕 먹는 부모에 대한 동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부모에 대한 조롱으로 앞서 말한 ‘효’의 가치에 위배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내쫓은 부모를 다시 거두고 보살피기 위한 의도로 시작한 잔치라는 점에서 성급히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선 가쁜장아기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운명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가쁜장아기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가쁜장아기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부모와 대등해진 자신의 독립의 완성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오만과 무지를 깨우쳐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 음식을 일부러 늦게 대접하는 것은 그녀가 이제는 가족 질서의 새로운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부모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부모에게 확인시킨다. 부모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모로서의 권

47)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05쪽.

위 의식으로 뚝뚝 몽친 오만과 무지를 의미한다. 부모의 오만과 무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를 깨우쳐주고자 가쁜장아기는 일부러 부모에게 늦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그러한 오만과 무지로부터 벗어남이다. 부모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 개척에 성공한 운명신으로서 그녀의 모습이 완성되는 부분이며, 이 잔치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녀는 ‘전상’을 언급한다.

“저는 본래 전상을 맡아 인간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된 것도 전상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 먹는 것도 전상, 입는 것도 전상, 장사하는 것도 전상, 농사일도 전상, 글 하는 것도 전상, 활 쏘는 것도 전상, 모든게 전상 아닙니까.”<sup>48)</sup>

이는 사실상 <삼공본풀이>의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며, 운명신의 내력담을 풀이하는 이 본풀이의 핵심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명백하게 ‘전상신’, 즉 ‘운명신’으로서의 가쁜장아기의 내력담을 완성하는 부분으로 민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무속 신화인 <삼공본풀이>에서만 보이는, 명백한 신화적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가쁜장아기가 뚜렷하게 자신의 전상신으로서의 면모를 인식하고 모든 인생사가 전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 통찰을 통해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은 완성된다.

---

48) 이 부분은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현용준·현승환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에서는 거지 부부가 내력담을 이야기하다 가쁜장아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면서 저와 같이 전상을 언급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나, 조현설(『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 출판, 2006, 295쪽)의 저서를 참고하면 무당 한생소 등이 실제로 부른 몇 창분에 위와 같은 가쁜장아기의 말이 나타난다.

## 2.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

위에서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크게 부녀 갈등과 분리, 가족에 대한 징치, 마통이와의 혼인, 금 획득, 거지 잔치 5개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서사 단락을 연결하고 종합하여 <삼공본풀이>가 지니는 이야기의 의미를 풀어내기 위해 이 이야기의 서사 단락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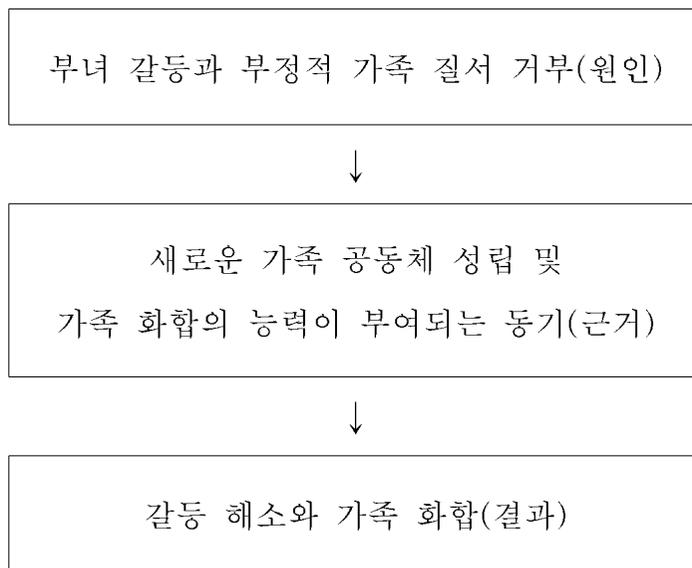
먼저, 5개의 서사 단락의 내용은 부녀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가족 질서에 투영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의미화할 수 있다.

- 1) 부녀 갈등과 분리 -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대한 거부
- 2) 가족에 대한 징치 - 부정적 가족 질서에 대한 거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임.
- 3) 마통이와의 혼인 - 새로운 가족 질서로의 편입
- 4) 금 획득 - 새로운 가족 질서의 중심 인물로 권위가 부여되는 동기
- 5) 거지 잔치 - 부녀 갈등 해소와 가족 화합

서사 단락을 위와 같이 정리하면 이 이야기는 기존의 부정적 가족 질서에 대한 거부와 그를 새로이 개편하고 화합하는 이야기로 가족과 가정에 대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좀더 크게 범주화하면 1)과 2)를 묶어서 부녀 갈등과 부정적 가족 질서 거부, 3)과 4)를 묶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성립 및 가족 화합의 능력이 부여되는 동기, 5)는 갈등 해소와 가족 화합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1)과 2)는 전체 이야기의 원인이

며, 5)는 이 이야기의 결과이다. 그리고 3)과 4)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이 이야기의 끝맺음인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즉, 1)과 2)에 나타나는 부녀 갈등은 3)과 4)를 통해 그 해결점을 찾게 되고 마지막 5)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를 구조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녀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본 인과적 서사 구조 >

즉, 부녀갈등과 분리라는 갈등의 발생은 혼인과 금 획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이것은 거지 잔치를 통해 부모를 용서하고 화합하는 내용으로 갈등 해소까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어지며, 가족에 대한 의미체계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신화로서의 <삼공본풀이>의 성격에 중점을 두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으로의 좌정 과정을 중점으로 놓고 본다면 다음

과 같은 의미화가 가능하다.

- 1) 부녀 갈등과 분리 - 기존의 권위와 관습에 대한 부정
- 2) 가족에 대한 징치 - 부정에 대한 행위 구체화
- 3) 마통이와의 혼인 - 조력자와의 만남
- 4) 금 획득 - 신으로의 좌정에 대한 근거
- 5) 거지 잔치 - 기존의 권위 타파 및 신으로의 좌정

이러한 의미화는 앞서 언급한 부녀 갈등과 해소와 비슷한 맥락으로 묶어 구조화시킬 수 있다.

1)과 2)를 묶어서 기존의 권위에 대한 부정과 징치를 통한 신격의 구체화, 3)과 4)를 묶어서 신의 좌정에 대한 근거담으로서 시련 극복을 통한 신격 증명, 5)는 신의 좌정이라는 결말로 묶어 구조화시킬 수 있다.

1)과 2)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다. 신화에서 신이 되는 주인공들은 항상 기존의 관습이나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혹은 그러한 기존의 권위로부터 공격이나 축출을 당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은 그들이 신이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위한 장치로, 시련이 주어져야 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1)과 2)에서도 역시 기존의 권위에 대한 부정과 그러한 기존 관습과 권력에 대한 부정의 행위 구체화로 징치 요소까지 들어간다. 이 징치 요소는 바로 그녀의 신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첫 부분이기도 하여, 그녀가 후에 신으로 좌정되는 끝부분과 함께 이 본풀이의 중요한 신화적 성격을 나타내는 내용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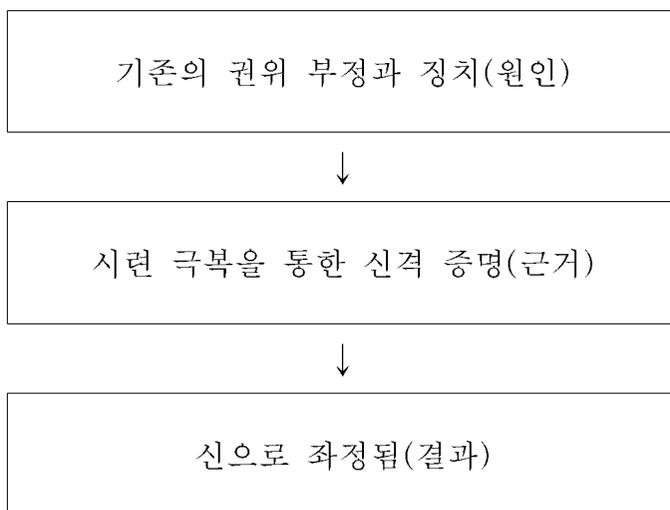
도 하다.

3)과 4)는 그녀가 신으로 좌정되기 위한 근거담, 즉 그녀가 신격을 가진 인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성공을 위해 필연적으로 신화나 혹은 영웅담에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도사 등의 조력자를 만나거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신이나 혹은 영웅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이 부분 역시 그러한 신화의 요소와 일맥상통한다. 남편인 마통이와의 만남을 통해 금을 획득하게 된 것은 조력자와의 만남이 계기가 된 성공으로, 이 성공은 부의 형태로 나타나 신의 좌정이라는 성공의 중요한 근거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 성공에는 인물 및 상황의 조력이 있었다. 이러한 조력은 그녀의 신성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3)과 4)는 신의 좌정이라는 본풀이의 결말에 있어 필연적인 부분이다. 1)과 2)에 나타나는 시련, 그리고 이어서 3)과 4)와 같이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담이 등장해야 신의 좌정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는 마지막 신의 좌정 부분이다. 신이 되는 인물들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또,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남다른 면모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신으로 좌정된다. 가문장아기 또한, 1)과 2), 그리고 3)과 4)를 통해 기존의 권력과 관습을 부정하고, 또한 혼인과 금 획득을 통해 시련 속에서의 능력과 신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모습을 증명함으로써 ‘전상신’으로 좌정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친 부모를 위하여 잔치를 열고 부모의 눈을 뜨게 하며 다시 언니들을 사람으로 변신시켜 여유와 포용, 그리고 이해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가문장아기는 진정한 신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신으로의 좌정’이라

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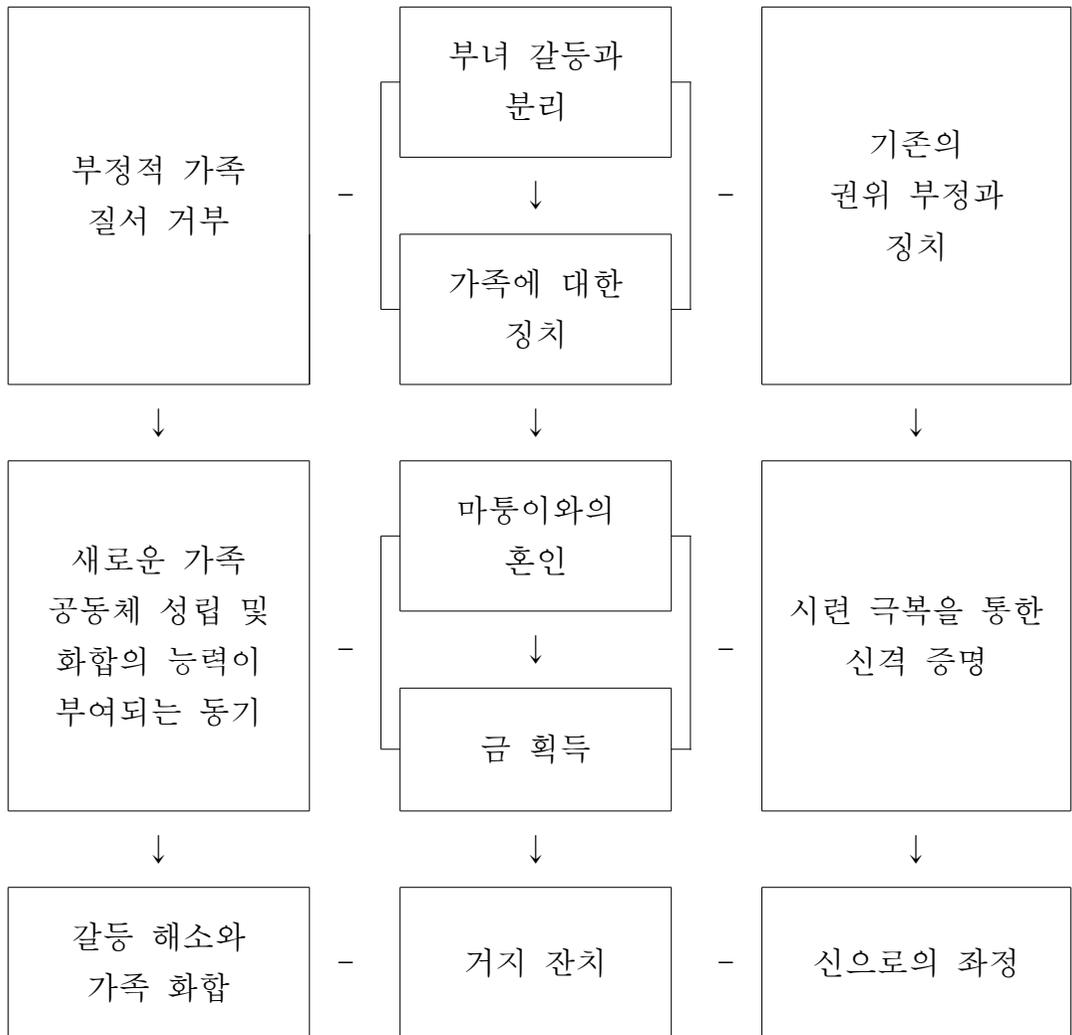
즉, 이 이야기는 신화로서의 성격을 토대로 신의 좌정 과정을 중심축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신의 좌정 과정을 중심으로 본 인과적 서사 구조 >

두 서사 구조, 즉 부녀 갈등과 그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와 신으로의 좌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는 모두 인과적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인과적 결합으로 동일한 구조라 볼 수 있는 이 5개의 서사 단락인 ‘부녀 갈등과 분리 - 가족에 대한 징치 - 마퉁이와의 혼인 - 금 획득 - 거지 잔치’는 어느 서사의 축을 중심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개의 서사 단락은 사건의 인과적 결합이라는 구조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다른 의미가 병치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삼공본풀이의 인과적 서사 구조 >

위의 도표와 같이 <삼공본풀이>는 인과적 결합과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서사 단락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과 운명에 대한 의미가 병치되어 나타난 교차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의미들은 각각 별도의 의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남다른 주체의

식과 운명에 대한 개척 정신을 지닌 그녀는 충분히 새롭고 조화로운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신으로 좌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녀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축은 신으로의 좌정이라는 서사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상신으로서 그녀의 성격과 역할, 즉 전상의 양상과 의미를 가족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의미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녀의 전상신으로의 성격과 역할은 그녀와 가족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더 분명히 드러나며, 가족 관계 속에 드러난 전상의 양상을 통해 ‘전상’의 의미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 Ⅲ. <삼공본풀이>의 전상의 의미

#### 1. 가족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상의 양상

위에서는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고 그 인과적 구조에 따라 추출되는 의미를 파악하였다.<sup>49)</sup>

본풀이가 본래 신의 내력담인 것에 근거하면 <삼공본풀이>의 가장 중심적 의미는 주인공 가문장아가기 전상신으로 좌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는 전상신으로서의 그녀의 면모를 살피고, 이로부터 ‘전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풀이 안에서는 가문장아기를 운명신이 아닌 ‘전상신’으로 언급한다. 가문장아기는 후에 운명신으로 좌정되고 이 운명신에 대해서 제주도 무속사회에서는 ‘전상’을 차지하는 신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전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의미를 풀어보고자 한다.

장주근<sup>50)</sup>은 전상의 뜻을 계속 술을 마시는 버릇이나, 도박, 도둑질을 되풀이하는 행위나 그러한 마음가짐의 뜻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거듭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전상이다, 전상 붙어서 그런다’고 한다.

49) 김영숙(「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0.)에서도 <삼공본풀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영숙은 <삼공본풀이>의 의미를 신화적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 본고와 다르다. 이 논문에서 김영숙은 가문장아기의 신성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자신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부친의 욕망은 잠재된 신성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보았으며, 가문장아기는 이 분리로부터 자신의 신성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 기회는 바로 결혼이고, 결혼을 통해 신성 위기를 극복한 후 신적 아이덴티티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신으로의 좌정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은 바로 부녀 갈등의 해소이며, 이 해소를 통해 인간과 신의 공존과 합일이라는 지향점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세계 지향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50)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99쪽.

또 농업이건, 어업이건, 상업이건 다른 직업에 열중하여 살아가는 것도 ‘전상’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으로 미루어서 ‘전상’은 ‘전생’의 와음으로, 결국 ‘전생인연’의 뜻이며, ‘전생의 인연’이라는 불교적 관념이 제주도 무속사회 나름으로 민속화되어서 전승되고 있는 하나의 관념이 ‘전상’인 것으로 여긴다고 정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전상의 의미는 장주근의 저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장주근 뿐 아니라 황인덕, 김석배, 현승환 등 대개의 <삼공본풀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위와 같은 의미로 정리하고 있다. 전생의 개념이 불교적 관점의 용어라는 점 때문에 불교대사전을 살펴보았으나 ‘전생’만 수록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의미의 ‘전상’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sup>51)</sup>

이에 덧붙여서 아직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전상의 개념에 대하여 좀더 심화한 연구는 이수자의 연구에서 다른 전상의 의미다. 이수자는 <삼공본풀이>의 제의로서 삼공제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 전상에 대하여 더 자세한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이수자<sup>52)</sup>에 따르면, 삼공신은 모진 전상(나쁜 전상)과 좋은 전상에 관여하고 있고, 이 신이 제의되는 목적은 좋은 전상을 가져다 주도록 기원

51) 『불교대사전』(世界聖典刊行協會, 1974)에 등재된 전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三細의 하나로 能見相·見相이라고도 한다. 無明業相에 의해 觀相을 인식하는 마음 곧 주관적 인식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 이것은 主客 能所가 나누어지지 않았던 業相이 비로소 主觀의 작용을 일으켜 客觀境을 인식하려고 하지만 아직 인식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 외에 항상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화살과 같은 모양,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산란치 않는 것 등의 의미가 등재되어 있다.

52)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 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부정적인 의미의 전상은 내쫓고, 긍정적인 의미의 전상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자는 이 논문에서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토대로 전상신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타인의 가난과 부를 마음대로 주관하기
- 2) 비정상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징치하고, 착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주기
- 3) 안맹과 같은 신체상의 질병을 불러일으키게도 하고 없애 주기도 하기

결국, 삼공신의 기능인 전상을 주관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의 가난과 부, 질병과 건강을 주관할 수 있음이고, 이는 상대방 마음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삼공신의 전상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진 전상 쪽에 살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전상 쪽에 살게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가쁜장아가기가 ‘운명신’으로 일컬어지는지 이해가 쉬워진다. 전상이란 인간의 삶이 운명지워진 상황, 즉 인간의 운명이나 팔자와 비슷한 개념이며, 또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 등을 가리키는 옛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전상신이란 바로 인간 한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인간 삶의 양상을 좌우하며, 또는 그와 같은 운명적 상황이 마련되도록 어떤 요인을 불러 일으키는 신이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인간 삶이 전상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가쁜장아기는 인간의 삶의 양상, 즉 인간의 전상을 좌우하는 운명신으로 좌정된다.

이와 같이 전상차지를 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가진 능력과 인간과의 사이를 놓고 보면, 결국 인간 한평생의 삶의 내용은 전상신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이 평생에 걸쳐 좋은 전상 쪽에서 살든, 아니면 모진 전상 쪽에서 살든, 혹은 좋은 전상과 모진 전상 쪽을 왔다 갔다 하든 모든 것은 전부 전상신에 의한 결정이며, 인간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양상이 바로 자신의 전상인 것이다.

이러한 전상의 양상은 <삼공본풀이>의 가족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문장아기와 부모, 언니, 마통이, 그리고 마통이의 형들까지 각각의 관계 속에 나타난 전상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가문장아기를 낳으면서 부자가 되었다. 가문장아기의 의지가 개입된 주체적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의 부는 가문장아기의 탄생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가문장아기가 부모의 부를 주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부모에게 ‘부’라는 좋은 전상을 내려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 덕에 부를 이루고 평온하게 살아가던 부모는 어느 날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사냐는 문답을 통해 부모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모의 그릇된 가족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식에 대한 소유욕과 권위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모습이다. ‘부’라는 좋은 전상을 받았던 부모는 상황이 바뀌어 나쁜 전상을 받게 된다. 권위와 위신을 강요하는 부모는 부정적 인물로 징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가문장아기를 찾아 나오다가 문지방에 눈이 걸려 맹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부를 잃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처음에 막내딸 가문장아기의 탄생으로 좋은 전상인 ‘부’를 받았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자신의 권위

와 위신을 강요하다가 징치로 나쁜 전상인 ‘안맹’과 ‘가난’을 받게 되었다. 후에 거지 잔치에서 부모는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 나쁜 전상인 ‘안맹’으로부터 해방된다. 이와 같은 나쁜 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도 그들이 자신의 오만과 무지로부터 벗어나면서, 가쁜장아기의 주관에 의해서였다. 가쁜장아기의 부모는 ‘부’와 ‘안맹의 해방’이라는 좋은 전상을 받기도 하고, ‘안맹’과 ‘가난’이라는 나쁜 전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전상은 부모의 마음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가쁜장아기의 언니들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쁜장아기의 두 언니는 자신들의 편익과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이 사는 것이 부모 덕이라는 거짓 답을 한다. 그리고 가쁜장아기가 부모와의 문답 후 노여움을 사서 쫓겨날 때 마음이 바뀐 부모의 말을 거짓 전하여 부모와 가쁜장아기 사이를 이간질하는 인물로 나온다. 탐욕스럽고 자매간의 우애를 모르는 두 언니 역시 징치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청지네와 용달 머슴으로 변신하게 되고 비정상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던 두 언니도 이와 같은 나쁜 전상을 받게 된다.

가쁜장아기가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만났던 마통이의 두 형도 나쁜 전상을 받는다. 이 두 형 역시 비정상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두 형은 사납고 통명스러운 인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에게 마의 꼬리와 모가지를 줌으로써 불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쁜장아기가 흰 밥을 해서 올렸을 때 벌레밥은 먹지 않는다며 가쁜장아기에게 못되게 굴기도 하였다. 이런 두 형에게도 가쁜장아기는 나쁜 전상을 내린다. 두 형에 대한 나쁜 전상은 두 형의 마 캐는 곳에 똥과 뱀 등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문장아기의 남편이 된 마통이는 위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좋은 전상을 받은 인물이다. 마통이는 선하고 효심이 깊으며, 가문장아기를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가난해도 착한 마음씨로 살아가는 마통이는 가문장아기와의 만남을 통해 금 획득을 통한 ‘부’를 이룸으로써 좋은 전상을 받게 된다. 더불어 그가 가문장아기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좋은 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가족들에게 나타난 나쁜 전상, 좋은 전상의 양상은 인물들의 악행이나 덕행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악한 성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악행에 따라 안맹과 같은 신체적 질병 혹은 가난, 그리고 벌레나 버섯으로의 변신 등 나쁜 전상을 받게 되고, 착한 성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덕행에 따라 부와 같은 좋은 전상을 받았다. 위에서 정리한 대로 같이 ‘전상’이라는 용어의 불교적 성격과 관련지어 본다면, 이 덕행 여부로 인한 전상은 그 사람의 전생의 업에 따른 것이며, 또한 현생에서의 업은 내세에서의 운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삼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운명은 이와 같은 전상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하는 것이 바로 가문장아기라는 인물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부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기도 하는 등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었으며, 악한 사람에게는 징치를 통해서 변신이나 안맹 등의 벌을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타인의 전상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진언 등을 통해 가문장아기의 직접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가문장아기의 탄생이라든가 가문장아기의 행위에 따라 나

타나는 결과나 우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문장아기라는 인물이 매개가 되어 전상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후에 가문장아기가 전상신이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가문장아기가 전상신이 된 것은 스스로 운명 앞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었다는 점이 제일 클 것이다. 더불어 그녀의 전상신으로서의 역할은 비단 자신의 운명에 대처하는 능동적 자세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하여 신으로 좌정되는 능력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전상, 즉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삼공본풀이>는 전상신의 내력담이다. ‘전상’의 의미를 탐구하여 파악하고 또한 전상신으로서의 그녀의 역할과 성격을 밝히는 데에는 먼저 전상의 개념과 양상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문장아기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상의 양상을 보여주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악한 사람들에게 나쁜 전상을, 착한 사람들에게 좋은 전상을 내렸으며, 이러한 전상은 그 인물의 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현생의 업은 내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매개자로서 가문장아기가 전상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가족 관계 속에서 나타난 전상의 양상은 그녀가 스스로 운명에 대한 주체적 의지와 능동성을 보여줌으로써 전상신으로 좌정되었다는 것과 함께 타인의 전상, 즉 운명을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가문장아기

의 전상신의 역할과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상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고, 더불어 전상신의 내력담으로서 <삼공본풀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2.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전상의 의미

위에서는 이 전상의 개념과 함께 가문장아기의 가족 관계 속에 드러나고 있는 전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양상을 토대로 전상의 의미를 더 상세하고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그를 통해 전상신의 성격을 분석하여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왜 운명신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상의 의미를 풀어내는 것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에, 전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그녀가 전상신, 즉 운명신이 된 것은 앞서 가족 관계를 통한 전상의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그녀의 역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행위의 선악에 따라 좋은 전상과 나쁜 전상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강요한 부모에게 안맹과 가난이라는 징치를, 그리고 자신에게 못되게 군 언니들에게 지네와 버섯으로의 변신이라는 징치를 내렸다. 또한 마통이 삼형제 중 사납고 통명스러웠던 두 형에게도 마 캐는 밭에서 똥과 뱀 등이 나오도록 나쁜 전상을 내렸다. 그리고 착하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마통이에게는 금이라는 좋은 전상을 주기도 한다. 즉, 가문장아기는 상대방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양상을 다르게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전상을 맡아 주관함으로써 인간

이 스스로 착한 삶을 살도록 효와 선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그녀가 다른 사람의 전상을 주관한다는 역할 뿐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말을 보면, 인간의 운명은 전상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는 본래 전상을 맡아 인간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된 것도 전상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 먹는 것도 전상, 입는 것도 전상, 장사하는 것도 전상, 농사일도 전상, 글하는 것도 전상, 활 쏘는 것도 전상, 모든게 전상 아닙니까.”<sup>53)</sup>

그러나 가문장아기의 운명을 보면 그녀의 이런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보인다. <삼공본풀이>를 살펴보면 그녀에게는 다른 인물과 달리 내려진 전상이 없어보인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전상을 주관하는 역할이 주로 나타난다.

그녀는 정해진 운명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찾아나간 인물이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운명을 거부하였다. 남다른 독립 의지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주관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앞에 펼쳐질 낯선 운명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간다. 그녀는 당당하게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자신을 믿었으며 집을 나와서도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녀가 혼인을 하고 부를 이루고 가족과 함께 다시 집안을 일으키면서도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

---

53) 32쪽의 각주 48)과 동일.

비록 그녀가 지닌 신성성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태도를 지닌 채로 집을 나와 남편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또 금을 발견해서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가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서는 모습은 분명 전상에 따라 정해진대로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라 하기 힘들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이며 그것에 의해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운명이란, 그렇게 하도록 혹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것’일 것이다. 전생과 관련지어 전상의 개념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전생의 업에 의해 현세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자의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또한 ‘정해진 것’일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정체성이 뚜렷하도록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찾아나갈 줄 알았던 가쁜장아기의 마지막 말대로 인간의 세상살이가 모두 전상에 따른 것이고, 전생의 업에 따라 이미 운명지워진 것이라면 이는 인간의 운명은 팔자소관이라는 말과 맥이 닿아있다. 이는 자신의 운명을 당당하게 찾아나간 주체적인 인물인 가쁜장아기의 삶, 그리고 그녀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혹은 나쁜 전상을 내려 그들의 길흉화복과 운명을 좌우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전상신으로서의 성격을 규명한 앞의 논의와도 역시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앞장서 깨뜨리고 나아갈 줄 아는 가쁜장아기가 왜 모든 일은 전상에 의해서라고 말할까. 어찌 보면

당대의 가치관, 즉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현실적 안주의 삶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그녀, 혼인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여자란 남자에게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기존의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보여준 가쁜장아기가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 전생의 업에 따른 어떤 운명을 그들의 선악 행위에 따라 관장하는 운명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역설적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가쁜장아기의 전상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전상은 자신의 전상을 뛰어넘고 바뀌나갈 줄 아는 것이다. 이 역설적 논리가 가쁜장아기가 전상신으로 좌정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가쁜장아기는 그렇게 자신의 전상을 찾아감으로써 신으로 좌정된다.

전상을 뛰어넘고 바뀌나간다는 자신의 전상을 잘 찾아나간 이 역설적 논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전상’의 의미와 운명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전상을 넘어서고 운명을 찾아나갈 줄 아는 가쁜장아기가 사람들의 전상을 관장하는 전상신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전상’의 본질적 의미가 전생의 업에 따라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찾아나가는 용기와 지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쁜장아기와 대조적으로 <삼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전생의 업에 따라 전상으로 길흉화복이 정해졌던 인물들이었다. 가쁜장아기를 전상신으로 매개하여 주어진 전상, 즉 운명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쁜장아기와 다른 인물들이었다. 스스로 운명을 찾아나가고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노력도 의미도 보여준 인물들이 아니며, 독립의지와 주체성, 능동성을 가지고 행동한 인물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대개 수동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삶의 편리성과 이득에 따라 행동하고, 도덕적 가치나 미래지향적 가치 등에 대한 해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왜 가쁜장아가기 신으로 좌정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체성과 독립의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상에 대한 언급까지 운명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보였기에 가쁜장아기는 운명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전상 즉,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좌정되기까지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상’의 좀더 본질적인 의미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나 시련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한탄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 이유를 항상 다른 사람이나 이유로 전가해버리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내 앞으로의 주어진 운명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렇지만 <삼공본풀이>의 전상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정해져 있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진정한 운명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가쁜장아기처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으로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운명을 탓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찾아 나갈 줄 아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점이 바로 <삼공본풀이>가 시사하는 진정한 ‘전상’의 의미일 것이다.

### III. 결론

본고에서는 제주의 무속 신화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분석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두 가지의 의미, 가족 공동체와 전상신에 대한 의미 추출을 통해 ‘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상신의 성격과 역할을 정리하였다.

먼저 본고에서 분석한 <삼공본풀이>의 서사 단락 5단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건 부녀 갈등과 분리를 통해서 부녀간의 ‘누구 덕에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 복(배꼽 밑 선그릇)에 산다’는 가문장아기의 대답과 그로 인한 분리가 나타난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부장적 권위와 위신을 부정하고 주체성과 독립 의지를 가진 가문장아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징치는 가부장적 권위와 위신을 강요하는 부모 뿐 아니라, 우애가 부재하는 부정적 가족 질서를 보여주는 두 언니에게 진언을 쳐서 변신시키는 징치 요소를 통해 부정적인 가족 질서를 뚜렷이 거부하는 가문장아기의 행동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 징치 단락에는 언니들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역시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된 부모가 맹인과 거지가 되는 징치까지 포함된다. 세 번째 단락은 마통이와의 혼인이다. 이 부분에서는 가문장아기가 신으로 좌정되는 성공담의 근거로 조력자인 남편 마통이와의 만남이 나타나고, 또한 남편을 고르는 기준을 인품과 배려로 정함으로써 부정적 가족 질서를 대체하는 조화로운 가족 질서를 제시한다. 네 번째 단락 금 획득은 그녀가 가족 질서를 새로이 만들어나가는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더불어 운명신으로 좌정되기 위한 성공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금 획득을 통

해 가쁜장아기는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는 통과제의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 거지 잔치 부분에서는 부모를 개안시켜 구원하고 또한 그들의 오만과 무지를 깨우쳐 주면서 부정적인 가족 질서를 타파하고, 더불어 전상을 언급하며 전상신, 즉 운명신으로 좌정된다.

이 서사 단락들은 인과적으로 결합하며, 두 가지 의미 지점을 향하여 귀결되고 있다. 하나는 부녀 갈등과 그 해소라는 서사축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에 관한 의미이며, 또 하나는 신화적 관점에서 신으로의 좌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 운명에 관한 의미로, <삼공본풀이>의 구조는 서사 단락의 인과적 결합을 축으로 하여 이 두 가지 의미가 병치·교차되어 나타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 구조가 아니며, 긴밀히 연관되어 나타난다. 가쁜장아기가 전상신으로 좌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부녀 갈등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신으로 좌정될만한 능력, 즉 주체성과 남다른 지혜, 포용력 등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이는 부녀 갈등과 해소라는 서사축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즉 부녀 갈등과 해소라는 서사축은 신으로의 좌정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한 전상신으로서 그녀의 성격과 역할, 즉 전상의 양상과 의미를 가족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의미는 상호 보완적이다.

<삼공본풀이>는 전상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존 연구의 전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이 타고난 운명, 팔자,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상신이 된 가쁜장아기는 바로 사람들의 운명을 관장하는 운명신이 된 것이다.

전상은 가쁜장아기의 가족 관계 속에서 인물이 지니는 선행과 악행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가쁜장아기는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 즉 부모와 언니, 마통이의 형들에게는 각각 안팎과 가난, 청지네와 용달 버섯으로의 변신, 마밭에 똥과 뱀 등이 가득하게 만들기 등의 나쁜 전상을 준다. 또한 착하고 효심이 깊었던 마통이에게는 금, 즉 부라는 좋은 전상을 내린다. 그리고 자신의 오만과 무지를 깨닫게 된 부모에게도 개안이라는 좋은 전상을 내린다. 가쁜장아기는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전상을 달리 내림으로써 선과 효를 강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전상, 운명을 관장하는 전상신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난다.

이 뿐 아니라, 그녀가 전상신이 된 것은 무엇보다 그녀의 운명에 대한 자세였다. 여기서 시사하는 의미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위에서 전상의 양상은 마치 주어진 운명인 양 나타나지만, 가쁜장아기의 내력을 살펴보면 그녀는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다.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관습과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찾아나간 가쁜장아기가 후에 부모에게 모든 인간의 삶은 전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 역설적으로 들린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가쁜장아기가 제시하는 전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이다. 이 전상에 대한 의미와 운명관이 바로 <삼공본풀이>라는 전상신의 내력담을 통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상의 의미 성찰을 통한 운명에 대한 담론 뿐 아니라 이 신화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이상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은 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아 실현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쁜

장아기라는 인물상을 통해 구습과 권위를 당당히 부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21세기의 이상적 인간형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문장아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형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까지 시사한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부모의 보호와 지시 아래 움직이는 많은 아이들, 무엇을 하는 ‘방법’을 익히기보다는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가 목표하고 의도한대로 이끌려 ‘방법’을 모른 채 부모의 욕구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많은 아이들, 또 그들을 수단화시키는 많은 부모들에게 말이다. 대학에 취직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취직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 족’이라든가, 아이들의 숙제나 심지어 대학생이 된 자녀의 수강신청부터 취업 준비 등 늘 자식들 주위를 빙빙 돌며 모든 것을 해주는 일명 ‘헬리콥터 엄마’까지, 현대 사회의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자식간의 기형적인 관계들이 만들어낸 괴상한 신조어들을 접하며 가문장아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서로에 대하여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히 전상의 의미와 운명에 대한 담론 뿐 아니라, 고대의 무속 신화 안에는 많은 시간의 흐름을 건너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의 원류가 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곳곳에 숨어있어 시대를 관통하여 현대의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항상 자신들의 기원, 우주, 삶과 죽음에 대하여 그 의미를 탐구해왔다.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랐으며, 의식주

의 풍요와 함께 무병 장수하기를 소망했다. 사후에도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기도 하며, 행복과 안녕을 빌어왔다.

무가는 인간의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한 평생의 복락, 건강, 부귀, 장수 등을 기원하고자 제의를 행해왔다.<sup>54)</sup>

<삼공본풀이>는 이러한 제의를 구현하는 무속 신화로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상 중 ‘운명’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담론이다. 신화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다. 신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는 한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 문화, 역사의 뿌리이며 원류이고, 그 민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한 단서이다.

위에서 분석한 본풀이는 위대한 건국 신화도, 웅장한 창조 신화도 아니다. 위엄 있고 전지전능한 신에 관한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본풀이 속의 주인공 가문장아기처럼 버림도 받고 시련도 겪으며 꺾끗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신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하고 정립해나가는 가문장아기의 이야기에서 부모로부터의 예속을 당당히 거부하는 진정한 주체성과 독립의지, 운명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와 남다른 통찰력, 그리고 포용과 이해로 드러나는 진정한 여성성의 면모 등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엿보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고, 때로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삼공본풀이>에 대한 연구 과제는 남아있다. 특히 이 본풀이의 핵심 개념인 전상은 아직 그 개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전상의 의미를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풀어냈다는

---

54)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전상의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전상의 의미를 풀어낼 수 있어 가치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무속 신화들에 비하여 여타 설화와 공통 화소가 많은 <삼공본풀이>는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의 상호 유사성에 관한 연구 성과는 있는 편이나, 그 외의 <서동 설화>나 <심청 전>등과의 연구 관계는 미진하여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여타 연구 성과가 보완된다면 제주 무속 신화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참고 자료

『韓國口碑文學大界』 1-3, 1-4, 1-9, 2-1, 2-6, 2-8, 4-2, 4-4, 4-5, 4-6, 5-6, 6-1, 6-5, 6-9, 6-12, 7-8, 7-9, 7-10, 7-12, 7-13, 7-14, 7-16, 7-17, 8-3, 8-4, 8-5, 8-8, 8-9, 8-11, 8-14,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7권, 9~10권, 12권, 평인사, 1992.

현용준·현승환, 『한국고전문학전집 29.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佛敎大辭典』,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 2. 참고 문헌 및 논저

곽정식,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성격」, 『인문학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곽정식, 「설화에서 본 여성 주체의 자각과 성장」, 『釜山漢文學研究』 부산한문학회, 2003.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석배, 「내 복에 산다 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제3집』, 文學과語文研究會, 1982.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김영희,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 구전설화 내복에 산다를 중심으로」, 『濫知論叢』, 온지학회, 2008.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박희순,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서대석, 『서사무가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3.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현암사, 2003.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 우리 신들의 귀환을 위한 이야기 열두 마당』, 한겨레 신문사, 2004.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6.

양민정, 「민담을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 방안연구」,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 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인경, 「<가쁜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이지영, 「내복에 산다 형 민담의 전승변이 연구」,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 역락, 2001.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5.
- 정규식, 「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 『동아어문논집』, 동남어문학회, 2002.
-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建國語文學』,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 정인모, 「여인발복설화의 소설화 양상 고찰」, 『金龜論叢』, 동국전문대학, 1996.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조은희, 「내복에 산다와 복진며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2.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최운식,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71.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현승환,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민요·무가·탈춤연구』, 국문학

연구 총서 12, 태학사, 1997.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현용준, 집문당, 2005.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 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1988.

# Significance in Narration and Jeonsang in <Samgongbonpuri>

Hyo-Jeong Ahn

Major of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ung-Kwon Je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rration in <Samgongbonpuri>, which is Shaman myth in Jeju Island, and is to grasp significance in Jeonsang.

Analysis of narration paragraph in <Samgongbonpuri> can be divided into 5 stages in 'conflict and separation in father and daughter - discipline on family - marriage with Matungi - acquisition of gold - beggar's party.' Each paragraph is divided into the narration axis called conflict and solution of father and daughter and the narration axis called being seated as God. Each is shown the significance in the rejection of negative family order and in the family harmony and the significance in the denial of the conventional authority and custom and in being seated as God through disciplining and overcoming affliction. This is put side by side to be crossed, thereby being indicated in <Samgongbonpuri>.

Also, Jeonsang,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Samgongbonpuri>, is analyzed mostly as former existence or destiny. Gamunjangagi shows the aspect of Jeonsang

through family relations. Bad Jeonsang is given to the evil and fierce character. Good Jeonsang is given to the character with good and nice mind. Thus, it plays a role of God for Jeonsang. Also, the significance of Jeonsang can be found even in the image of Gamunjangagi, who proceeded with seeking for destiny and life subjectively and positively. While the fixed destiny is Jeonsang, it is contrary to the image of Gamunjangagi like this. This was Gamunjangagi's Jeonsang that proceeds with changing beyond Jeonsang. Due to it, the paradoxical logic as saying that she can be seated as God for Jeonsang is established. In other words, courage and wisdom, which proceed with seeking for own destiny, become the essential significance of Jeonsang.

As <Samgongbonpuri> is a discourse on destiny and family, it is suggesting diverse values and significances in life to us.

## 감사의 글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제야 이 지면을 빌어 전합니다. 대학원 수업 때 고전 문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의 논문에 열성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정충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논문 심사를 통해 역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혜숙 교수님과 서원대학교 이주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전철웅 교수님, 박재승 교수님, 김승환 교수님, 이미순 교수님, 박노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학교 생활과 논문을 병행하느라 지치고 힘든 세계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흔들릴 때 마다 격려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논문 학기를 함께 하며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준 동생 효진이와 역시 지칠 때마다 격려해준 동생 치현이에게도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저의 절친한 동료 선생님들, 특히 한 학기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차현정 선생님과 격려와 응원으로 항상 힘이 되어준 권승한 선생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의 원천, 사랑스러운 우리 제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항상 노력하는 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며

안 효 정